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

12/5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2:5-6, 18-20**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18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엡 3:4-5, 16-17a**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

로마서에 계시되어 있듯이,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죽은 이들인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되어 그분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롬 8:2)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골 3:4) 인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죽은 영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5 절에서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거저 분배되신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의 위치에서 놀라운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203-204 쪽) [8 주 1 일, 아침의 누림]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직접 그분을 접촉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구원받았고, 체험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누림을 얻는다.

에베소서 2 장 18 절에는 신격의 삼일성이 함축되어 있다.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분이시요 적용이신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원이신 분이시요 우리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버지께 나아가 누리는 것이 필요했다. 몸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영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다. 우리는 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몸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얻었지만, 체험에 있어서 아버지를 누리려면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사실은 우리의 누림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치적으로 소유한 것을 체험적으로 누리려면,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253-255 쪽) [8 주 1 일,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고려할 때, 기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서 2 장 20 절에서 언급하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이다(고전 3:11). 그런데도 에베소서 2 장 20 절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에 대하여 말한다.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기초 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1 장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의 기초는 사도들과 신언자들 자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엡 3:4-5),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교회가 건축되는 기초로 여겨진다. 이것은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 있는 반석과 일치하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그리스도는 이 계시 위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받은 계시이다. 교회는 이 계시 위에 건축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259-260 쪽) [8 주 2 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2 장 20 절은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심을 계시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초(사 28:16)가 아닌 모퉁이 돌로 언급되신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관심하는 것은 기초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다. 이 모퉁이 돌은 주된 두 벽, 곧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해 준다. [8 주 2 일, 오늘의 읽을 말씀]

12/6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 고전 3:6, 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엡 4:12-13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벧전 2:2

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

에베소서 2 장 21 절에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지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교회는 자라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자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며 신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연결되어'라는 말은 건축물의 상태와 상황에 알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건축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과 건축이 분리된 것이지만, 사실상 집의 건축은 몸의 성장이다.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집은 건축될 수 없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262, 259 쪽) [8 주 3 일, 아침의 누림]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성장과 건축이 함께 연결된 것을 본다.

고린도전서 3 장 9 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경작지로서 우리는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우리는 건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 장은 우리의 몸이 자람으로써 총만한 신장에 이르는 것처럼, 이 영적인 집 곧 이 하나님의 거처는 자람으로써 건축된다고 말한다(21-22 절). 더욱이 베드로전서 2 장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들을 버렸다면 영적인 젖을 사모함으로써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1-2 절),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5 절). 에베소서 4 장 12 절과 13 절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우리는 자랄수록 더욱 더 건축된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건축이다. (하나님의 건축의 일, 3 장, 51 쪽)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자라게 하신다.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며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며, 우리에게서 그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하는 것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아직 충분히 체험한 것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영 안에서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자유롭게 그분께 말씀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주님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풍성을 흡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더 많이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실 수 있다. 나의 사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심거나 물 주는 것이다. 나는 누구도 자라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먹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더 많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자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52 장, 515-516 쪽) [8 주 3 일, *오늘의 읽을 말씀*]

12/7 수요일

### 아침의 누림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고전 3:6-7**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5:27**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벤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건축물 전체가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엡 2:21).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소, 즉 성전의 내부를 의미한다. 주님 안에서 건축물이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물 전체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성전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물 전체'(엡 2:21)라는 표현은 우주적인 건축물을 가리킨다. 우주적인 건축물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 바로 에베소서 2 장 21 절에 나오는 건축물이다. 비록 건축물이 자라는 것이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262-263 쪽) [8 주 4 일, *아침의 누림*]

거룩하게 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넘겨져야 하며,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소유 하셔야 하고, 넷째로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마침내 성경에는 거룩하게 됨의 결과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린다. 이 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며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인 성이다.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첫째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분별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구원받을 때 또한 분별된다. 이러한 이유로, 믿는 이를 성도라고 부른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거의 세상 사람들과 같다. 심지어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위치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기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왔다. 기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됨 뒤에 온다(롬 6:19, 22).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위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치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더 깊고 주관적이다.

분별되는 것은 다소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질에 있어서 적셔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적셔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고자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오십여 년 이상 이러한 과정에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과정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흡수하고 있다. 때때로 나의 아내나 형제자매들은 내가 그분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다. 심지어 내가 자신 안에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내가 그분을 흡수하는 것을 원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주님은 나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시고, 내가 그분을 흡수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적심을 아주 많이 체험하지 못했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온 때부터 점점 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있다. 교회생활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는 신성한 요소로 적셔지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과 똑같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완성되었다는 표시일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분별됨으로 시작하여 적셔짐으로 계속되며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으로 완성된다. 그때 우리는 안팎으로 그분과 똑같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 장, 42, 44-45 쪽) [8 주 4 일, 오늘의 읽을 말씀]

## 12/8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고전 3:16-17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 계 21:22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 고전 1:2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고린도전서 3 장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16-17 절).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가리키며, 17 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를 가리킨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인 성전은 땅 위에 있는 많은 지방에서 표현된다. 각각의 표현은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3 권, 교회생활에 대한 주님의 회복, 4 장, 778 쪽) [8 주 5 일, 아침의 누림]

사실상 에베소서 2장 21 절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주님 안에 있는 성전의 중심 부분을 의미하는 '성소(sanctuary)'로 번역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소는 우리의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다(22 절). 오늘날 교회생활은 우리의 영안에 있다. 여러분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집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 있지 않다. 교회생활은 우리 사람의 영안에 있다.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사용하며,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영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영을 떠나 처신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고 살고 행동하며 처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배와 우리의 자람은 모두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2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16장, 402쪽). [8주 6일, 아침의 누림]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이며, 우주적인 교회에 더해진 것이나 우주적인 교회에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함께 더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와 같다. 이것은 각지에 있는 교회들 없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오직 하나의 건축물만 있다.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는 각 지방에 다른 건축물이 있다는 타고난 관념을 갖고 있다. 이 우주 안에는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을 지닌 단 하나의 건축물만 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도, 이 두 방면을 지닌 오직 한 건축물만 있을 뿐이다.

에베소서 2장 22 절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믿는 이들의 영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는 분을 가리키며 거처를 가리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에베소서 2장 21 절에서는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22 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고전 6:17).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을 주님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교회가 건축되는 곳이다. 건축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혼이나 마음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스타디, 27장, 263-265쪽) [8주 6일, 오늘의 읽을 말씀]

1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출 40:34-35

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35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왕상 8:10-11

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11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창 28:19

19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출애굽기 40장 34 절부터 38 절까지는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기록이 있다. 34 절은 ... 두 방면에 대해 말한다. 이 절은 회막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한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회막과 성막은 동일한 구조물이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는 회막이었으나 하나님께는 성막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외적으로는 회막이었고 내적으로는 성막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만 회막 주위에 모여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막 안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출애굽기 40 장에서 회막은 구름으로 덮였지만, 성막은 영광으로 가득했다. 회막 주위에 모여 있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구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회막 위에 있는 구름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막 안에 있는 영광을 누려야 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85 장, 1996 쪽) [9 주 1 일, 아침의 누림]

우리가 구름과 영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바깥 부분, 즉 하나님의 영광의 '껍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껍질은 외적인 덮개를 의미한다. ... 사람의 몸에는 껍질인 피부가 있다. 피부는 몸을 덮고 있으며 몸은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다. ... 우리의 존재는 영이다. 성막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껍질을 볼 수 있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껍질을 볼 수 없었지만 성막의 내적인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번제단 주위에 모여 있거나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성막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영광은 지붕 위에 있지 않고 성막 안에 있다.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곳에 영광이 있음을 볼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85 장, 1997-1999 쪽) [9 주 1 일, 오늘의 읽을 말씀]

열왕기상 8 장 1 절부터 11 절까지는 성막이 성전에 하나로 합쳐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성막은 광야를 옮겨 다니던 이동 가능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전신이었다. ... 성전은 예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최종 완결로서 모리아산의 최고봉인 시온산에 건축되었다.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비교 출 40:34)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 오고, 땅이 하늘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어야 한다.

창세기 28 장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 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다리에 의해 거기서 하늘이 땅에 내려왔고 땅이 하늘에 연결되었다.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이 땅에 열려 있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다(요 1:51).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 오시고 땅은 하나님께 연결된다.

(열왕기상·하 라이프 스타디, 6 장, 44-45 쪽)  
[9 주 2 일, 아침의 누림]

12/10 토요일

### 아침의 누림

행 7:2, 55

2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55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엡 1:10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 17:22-23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3:16, 21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21:11, 23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감추어지실 때마다 영광은 표현되지 않는다. ...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좋은 땅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출 13:21).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셨다. 그것이 영광이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말씀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그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읽었다 (요 1:1, 14). 요한 복음 1 장 18 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 안에 영광이 있다. [9 주 2 일,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 장에 따르면, 하나(oneness)의 첫 번째 근거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이며, 두 번째 근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진정한 하나는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은 아버지의 총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이다. 영광에는 네 방면, 곧 아들의 자격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아버지의 총만 안에 있는 아버지의 표현이 있음을 주목하라. 이 네 가지 모두는 영광과 동일하다. ... 아버지는 이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표현하는 특권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영광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총만을 표현하도록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아들의

자격을 갖고 있다. ... 바로 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이다.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갈 2:20). ‘나’ 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자아는 반드시 부인되어야 한다. ... 한편으로 우리는 여러 세상적인 장소와 많은 세상적인 것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 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의견과 사상과 견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한 때 우리는 다양한 세상적인 장소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아라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닌 영광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된 후에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나서 반드시 세상을 포기해야 하며, 세상을 포기한 후에는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하나에는 거듭남,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세 근거 또는 세 단계가 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갖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분별됨으로 삼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우리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 신성한 생명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바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영광의 적용과 실재화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이다. [9 주 5 일,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했다(엡 3:16).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안으로 일해 넣어짐을 암시한다. 찬양하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 영광이 ... 있으시기를 바랍니다.”(20-21 절)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안으로 일해 넣어진 뒤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암시한다. ... 예를 들면, 이삭의 부(富)는 먼저 리브가에게 주어져 그녀를 아름답게 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왔을 때, 그 모든 부는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되돌아와서 이삭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창 24:47, 53, 61- 67).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따라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진 후에 강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

에베소서 3 장 21 절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9 주 6 일,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계 21:11),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 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 하나님 자신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교회생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님으로 이 놀라운 신성한 속성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 (신약의 결론, 1 권, 하나님, 11 장, 157 쪽) [9 주 6 일, 아침의 누림]

12/11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1:1-7, 9-11, 22-24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022. 12. 5 ~ 2022. 12. 10

단체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vol. 1,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헌신”, 10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1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됨, 3, 6-7장

찬송: 505 (英) 영광 안에 계신 주 (中:383)

1 영광 안의 한 사람 그의 생명 내 생명 순수하고 거룩하고 승리에 찬 지혜롭고 다정한 사랑스런 생-명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됐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 됐네.

2 영광 안의 한 사람 그의 생명 내 생명 마귀 울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함 위대함 위엄 넘치도-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됐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 됐네.

3 영광 안의 한 사람 그의 생명 내 생명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됐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 됐네.

4 영광 안의 한 사람 그의 생명 내 생명 한이 없는 인내 평안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형용할 수 없-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됐네 영광 안의 그 생명 내 생명 됐네.